‘金’ 홍어

수입 10kg 한상자에 평균 13만원…1년새 두배 넘게 올라

칠레 등 중남미 조업환경 악화에 물량 급감…식당 등 품귀

전라도 지역 잔칫날에 빠지지 않는 홍어가 귀하신 몸이 됐다. 결혼식이나 연초 모임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품귀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또 음식점이나 상가에서는 주로 수입산 홍어가 사용되고 있어 식당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서울 가락시장에서 최근 1주일(12월 24~31일)간 수입 홍어 10kg 1상자(상품 기준)는 평균 13만원에 거래됐다. 2013년 같은 기간(평균 6만2500원)의 2배가 넘는 가격이다.

주요 산지인 칠레 등에서 어족 자원이 줄면서 국내로 수입되는 홍어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입 홍어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상품 가격이 87.3%, 중품 가격이 129.5% 급등하며 한 달 사이 가격이 가장 급격하게 오른 수산품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유통업계에서는 지금껏 중남미 지역에서 수출용 홍어를 대규모로 잡아들이면서 현지에서 어족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점, 수온 변화 등으로 조업 환경이 나빠진 점 등이 물량 감소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칠레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냉동 홍어는 173t으로 2013년 같은 기간(1643t)의 10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 기간 미국산 냉동 홍어 수입량도 1225t에서 1075t으로 소폭 줄었다. 주요국 가운데는 아르헨티나산 홍어만 이 기간 3129t에서 4085t으로 수입량이 늘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어장 환경 변화로 칠레 등 홍어 주산지에서 어획량이 많이 줄었다”며 “국내 유통업체들이 수입상으로부터 사들이는 도매가가 20% 이상 올랐다”고 설명했다.

광주 송정시장의 한 상인은 “올 한해는 유난히 홍어 물량이 적게 수입돼 값이 많이 올랐다”며 “아직 오르지 않은 가격에 팔고 있지만 물량이 줄면 어쩔 수 없이 높은 가격에 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칠레산 홍어 물량이 계속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당분간 홍어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화이트 새해’ 흐린 날씨 탓에 ‘청양(靑羊)의 해’ 첫 해돋이는 광주·전남 대부분의 지역에서 볼 수 없었다. 1일 오전 광주시 서구 풍암동 금당산에는 함박눈속에도 새해 소원을 비는 인파로 붐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박원순 서울시장·이주영 전 장관 팽목항 방문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장관, 이낙연 전 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지난 31일 진도 팽목항을 찾아 실종자 가족 및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 전 장관과 이 지사는 이동진 진도군수와 함께 이날 팽목항을 방문해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과 유족들을 만나 점심을 함께했다.

유족들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분으로 되돌아온 이 전 장관을 향해 장관 재임 동안 유족들을 보듬고 기대를 주었듯이 세월호 인양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단원고 최정수 학생의 삼촌 최태현씨(45)는 “새누리당도 정부도 인양도 수색의 한 방법이라고 약속했기에 잠수사들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 가족들이 수중수색 중단을 결심했던 것”이라며 “정부가 5월부터 인양 검토를 시작해 벌써 7개월이 흘렀는데 지금에 와서도 인양에 대해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원망했다.

이날 오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인 강난희씨와 함께 개인 자격으로 팽목항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에어아시아機, 시신 인양·동체 확인 총력

여수 출신 부부 선교사인 박성범씨 일가족 3명이 탑승했다가 사라진 에어아시아기 실종 닷새째인 1일 인도네시아와 국제사회는 시신 인양과 동체 확인에 전력을 기울였다.

인도네시아 수색당국은 잠수부 60~70명을 투입하고, 선박 22척, 헬리콥터 7대, 항공기 15대 등을 동원해 사고 해역 120평방 해리를 수색했으나 높은 파고, 비바람 등 나쁜 기상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날 오전까지 시신 7~8구를 수습했다. 이중 여성 시신 1구는 승무원 복장을 하고 있었다.

수색당국은 시신 중 하나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번복해 탑승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구명조끼 착용 여부는 항공기가 조난 상황에 대응할 틈이 없이 추락했는지 등 사고 전후 상황을 밝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간주된다. 수습된 시신 중 4구가 항공기 출발지였던 수라바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유전자 검사 등 신원확인 작업이 시작됐다. 수라바야로 옮겨진 시신 중 1구는 10대 남자였으며 1구는 성인 여성이었다.

/연합뉴스

알립니다

‘테마칼럼’ ‘종교칼럼’ 새 필진을 만나세요

테마칼럼 매주 금요일 23면에 연재되는 ‘테마칼럼’ 필진이 새롭게 바뀝니다. 인문학과 경제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새 필진들은 4가지 테마로 독자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이상돈의 ‘바른 소리’, 윤석천의 ‘우리와 경제’, 서윤영의 ‘집과 사람’, 박경철의 ‘오디세이아’ 칼럼(글 싣는 순서)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 바랍니다.

이상돈 교수

윤석천 평론가

서윤영 칼럼니스트

박경철 대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전 중앙대 법대 학장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
◇윤석천 경제평론가
▲‘이코노미인사이트’ 집필 위원 ▲선대인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
▲저서 ‘경제기사가 말해주지 않는 28가지’ 등 다수
◇서윤영 건축칼럼니스트
▲고려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사과정 ▲홍익대학교·인하대학교 출강
▲저서 ‘건축, 권력과 욕망을 말하다’ ‘사람을 닮은 집 세상을 담은 집’ 등 다수
◇박경철 지식나눔 네트워크 대표
▲외과 전문의 ▲희망제작소 및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이사
▲저서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1, 2’ ‘시골의사의 부자경제학’ 등 다수

종교칼럼 매주 금요일 연재되는 ‘종교칼럼’도 1월부터 새로운 필진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개신교·원불교·불교·천주교(글 싣는 순서) 성직자들이 독자들에게 전하는 위로가 삶의 활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 부탁드립니다.

김성덕 목사

송우진 교무

원광 스님

김영철 신부

◇김성덕(화정교회 담임목사)
▲장로회신학대 및 동 대학원 졸업 ▲서울 영암교회 부목사
◇송우진(원불교 상무대교당 주임교무)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졸업 ▲(사)삼동청소년회 인성교육 강사
◇원광(나주 원각사 주지)
▲백양사 강원 수료 ▲봉암사·해인사·동화사 선방 등 안거성만
◇김영철(남동 5·18기념성당 주임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졸업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회사목

光州日報社

매일 24면…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kwangju.co.kr